



12년

홍제일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음 5월 20일) 제3531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농생명수도 조성 미래 방향성 모색

전북자치도 '제1회 전북포럼' 오늘 원광대서
한국·네덜란드·미국·이태리 등 9개국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25일 익산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제1회 전북포럼'을 열어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원광대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4개국 해외 초청 연사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대사 등 9개국이 참여해 농생명산업 관련 해외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수도 조성에 대한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개회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등의 축사가 진행되며, 아르헨티나 에말리아노 와이셀피츠 대사, 주광주 중국영사관 구 정치 총영사, 케냐 킵코 스키에 토로이티취 부대사, 뉴질랜드 대사관 지문관, FAO 한국협력사무소 웬야오 탕 소장 등이 참석해 국제포럼의 위상을 높여줄 예정이다.

이어서 특별연설로 FAO 빈센트 장 마틴 혁신국장(이탈리아), 노스다코타주립대 칼리더스 세티 교수(미국)와 하림 김홍국 회장이 참여해 '농생명업의 혁신', '글로벌 농생명산업의 허브'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다.

좌담에서는 신동화 교수(전북대) 사회로 특별연사자 3명을 포함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익산시장, 전북연구원장 등 8명이 무대에 올라 전북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답을 나눈다.

오후에 열리는 2개 세션에는 농생명·농식품·그린바이오분야 국내 학계 인사와 비헤닝현대 안

베르하겐 교수(네덜란드), 마이크 로소프트사 레오나르도 누네스 총괄엔지니어(미국), 비타고라클러스터 밈리 국제개발본부장(프랑스) 등 해외 저명연사들이 참여해 농식품 가치사슬(Value Chain) 혁신방안, 농생명산업 혁신체계 구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션1 '농식품 가치사슬(Value Chain) 혁신'에서는 백영희 한국식품연구원장의 사회로 3명의 발표자와 5명의 토론자가 함께하며,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육성 전략, △푸드시스템 전환과 글로벌 혁신 사례, △지역특화 식품산업 육성과 대응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세션2 '농생명산업 혁신체계 구축'에서는 3명의 연사들이 △지속가능 식량공급을 위한 데이터 기반 푸드시스템, △농식품분야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 방안, △전북지역 농생명 바이오산업 생태계 고도화 방안 발표를 하게 되며, 이어 김태연 교수(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사회로 5명의 토론자들이 주제별 의견과 농생명 발전에 대한 대답을 나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국제포럼은 전북의 농생명 생태계기반을 강화하고, 그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농생명수도 조성의 토대가 될 것이다"라며,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백년을 만들어가는데, 전북포럼이 한 발 더 뻗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외 연사들은 포럼 전날인 24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환영 만찬 연회에 참석했으며, 포럼 다음날인 오는 26일에는 미니세미나, 농생명 산업현장 방문 등을 함께하며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24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열린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지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임준 군산시장, 김만걸 BS산업 대표이사(새만금관광레저주식회사의 대표회사)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새만금 신시야미지역 관광지개발사업 성공 추진 '합심'

전북자치도·중기중앙회·새만금청·군산시·BS산업 등 협약
개발사업 추진 지원·투자, 지역 활성화 행정적 지원 등이 주내용

새만금 신시야미지역 관광지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맺어졌다. (관련기사 6면)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4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임준 군산시장, 새만금관광레저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만걸 BS산업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시야미 관광지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기관 중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62년 설립된 기관으로, 신시야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과 지역별 이사장 등 8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고군산군도와 새만금개발 현장을 살펴보는 자체행사를 열어 신시야미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BS산업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성실한 제반사항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 등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도입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이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으로 정부보증,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설립을 통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

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시야미 사업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자치도는 이날 협약으로 큰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새만금 투자는 새만금 관광개발의 마중물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관광지개발사업의 성공과 관광·MICE 허브 조성을 위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는 기계, 프라스틱, 제지, 정보산업, 물류 및 뿌리산업 등 전국의 업종별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전국조합 이사장과 총청 및 호남권 지역의 다양한 업종을 대표하는 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등 80여명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새만금 개발 지역에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외국인력 등 근로인력 관련 확보 등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신시야미는 새만금 방조제 내·외측에 있어 천혜의 관광여건을 지녀 관광 개발 활성화에 적합하다"며, "앞으로 관광 활성화에 빛을 보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시야미 개발사업 추진의 큰 모멘텀이 마련됐다"라며,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개발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또한, "올해 10월 개회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공동주관사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성료... 전국에서 3만5000여명 참여

책의 도시 전주에서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를 만나고 그림책을 즐기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3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전주시는 지난 22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진행된 독일 출신의 '수잔네 슈트라스'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을 끝으로

지난달 31일부터 3주간 진행

약 3주간 진행된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지난 5월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지난 23일까지 그림책을 주제로 한 강

연과 공연, 북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전국에서 3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특히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대표 행사인 '국내외 그림책 작가의 초청 원화전'에는 권문덕 작가(한국)와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 작가(독일)의 원

화가 전시되고, 도슨트 및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도 진행돼 행사기간 중 총 2만여 명이 관람했다.

또한 △전주 지역 신인 작가 12명의 원화와 더미북 등을 전시한 '시작·작가전' △그림책 작가 및 전문가를 만나는 강연 △그림책 작가 1인 극장 공연 △어린이가 작가 워크숍 △출판사 북마켓 등에도 1만5,000여명이 참여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함께 그림책을 즐겼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